

나주 로컬푸드, 내년 광주에 공급

‘전남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주체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선정
농성동 직매장 내년 7월 개장
대도시권 진출 교두보 확장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직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이 매장은 올해 일평균 매출 1000만원 을 달성하는 등 해마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로컬푸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가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설립중인 광주 농성동 소재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 공모에서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나주로컬푸드는 지난해 서울시 금천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이어 대도시권 진출 교두보를 한 단계 확장했다.
아울러 현재 380여 출하 농가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시가 설립한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생산 및 판로 확대, 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도 형성을 위한 중간 조직 역할을 전담해왔다.
센터가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은 올해 개장 3년차를 맞아 일평균 매출 1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해마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올 한해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정부의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공급급식 공급 협약 체결' 등 먹거리 분야 괄목할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비롯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지자체 최초로 먹거리 전담부서인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나주농산물 외에도 화순, 담양, 장성 등 인근 시·군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산품도 판매될 예정이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 축소'라는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히기 위해서다.
이에 센터는 내년 상반기 나주 지역 농가를 비롯해 인근 시·군 농가 조직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남도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주체에 선정된 것은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서 우리 시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권 전체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근 시·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직매장의 성공을 이끌어, 로컬푸드의 대도시 진출 모범·선도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제야의 북 두드림’ 3년만에 재개 31일 정수루 일원서 개최

나주시는 새로운 천년 나주 새해맞이 '제야의 북 두드림' 행사를 개최한다.
나주시는 31일 오후 10시부터 2019년 기해년의 희망찬 출발 '제야의 북 두드림' 행사를 나주 정수루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제야의 북 두드림' 행사를 3년만에 재개한다. 2015년 행사 모습.

나주 정수루는 조선시대 백성의 억울함을 풀이주기 위해 북을 설치했던 나주목사 학봉 김성일의 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 행정의 본보기로 설치한 역사적인 장소다.
나주 제야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화합을 기원해 오다가 2016년과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행사가 취소된 이후 2년 만에 재개된다.
오후 10시부터 트로트 가수 김연자, 나주시립 예술단, 퓨전국악단 (queen)의 흥겨운 축하공연으로 막을 여는 제야행사는 신년 메시지 낭독, 새해맞이 카운트 다운, 34인의 정수루 북 타고 등 2019년 새해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행사는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와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사회단체의 봉사·후원하며 새해 소원풍선 날리기, 신년 가훈 써주기, 행복떡국 나눔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정수루 북 타고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손금주 국회의원,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 34인이 참여하며 총 34회의 북을 울릴 예정이다.
34회의 북소리는 나주시 지역 높이 100m 이상의 산악 24곳과 주요 하천 10개소를 합한 숫자다.
"호남 8대 명산인 금성산과 영암의 월출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만나는 명당에 정수루가 위치해있다"는 구전이 있어 산천의 기운을 모은다는 의미를 담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년 만에 열리는 제야의 북 두드림 행사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의 발전을 기원하고, 전라도의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나주시민의 희망과 소원을 담아내고 설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배즙 첫 해외 수출... '배 주스' 5만개 호주로

나주 배로 만든 나주배즙이 호주로 첫 해외수출 길에 올랐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을 통해 배 원물 10t 분량의 배즙으로 만든 신제품 '배 주스' 5만개를 호주로 수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주배의 경우 올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11개국 대상으로 총 2700여 t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배즙의 해외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주APC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호주의 한 매체를 통해 '배로 만든 음료'가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계기가 됐다.
이후 인터넷,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탄 배즙은 외국인들 사이에 숙취해소용 음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호주 현지 업체는 지난 3월 국내 배 최대 생산지인 나주지역 APC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전용 배 음료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배 주스는 배즙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스파우트' (spout) 제품으로 내년 1월 10일부터 호주 멜버른 소재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성인용 숙취해소 음료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호주 수출을 계기로 나주시와 APC는 나주



배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9년 배즙 50t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시장 판촉행사 운영 ▲수출 물류비 지역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배와 배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마케팅을 추진해가겠다"며 "배 품종 다양화, 소포장재 보급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생산체계 구축으로 위축된 나주 배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나주시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빛가람동 우미린 경로당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버세대 텃밭정원은 '텃밭작물 재배'를 비롯해 '식물을 활용한 원예활동', '팜 파티' (Farm party) 등 3가지 주제로 65세 이상 남·여 어르신들의 우울증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원예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사진>
9월 아파트 단지 내 밭 갈기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은 배추 모종식재, 무 씨앗 파종, 꽃밭 가꾸기 등 여러 종류의 텃밭을 가졌다.
또 오감을 만족시키는 원예활동인 크리스마스 리스, 압화 액자, 목걸이 만들기과 피클, 김장김치, 꽃차 만들기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나주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동세대 간 소통의 물고기를 뜨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세대, 계층별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교육청 협력체계 강화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시가 지난 24일 교육부분 상호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한 지역교육 발전 방안 강구를 위한 '2018 나주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훈기 나주교육장과 강인규 나주시장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함께 하는 '경청 울레'를 실시하는 등 5개 안건을 협의했다.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과 시장이 함께 하는 경청 울레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나주 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제안해 양 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나주시청은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SW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지원센터 교육경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한계 없는 마운트 혁신의 시작 풀프레임 미러리스

찍고 싶은 것들을 완벽히 담고 싶다는 당신의 생각에 니콘이 혁신적 풀프레임 미러리스 Z를 제안합니다. NIKKOR F 렌즈*와 호환이 가능한 55mm 마운트로 모든 순간 경이롭게 표현되는 당신의 크리에이티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나가는 니콘의 기술력입니다.

CAPTURE TOMORROW

고화소 풀프레임 미러리스 Z 7
올리올라운드 풀프레임 미러리스 Z 6

NEW - Z 풀프레임 시스템 | NEW - Z 마운트 & NIKKOR Z 렌즈 | NIKKOR F 렌즈 호환* | QUAD VGA EVF (3.6M 화소 전자뷰파인더) | 이미지 센서 시프트 방식 5축 VR | *렌즈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니콘이미징코리아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4층 [대치동 892] TEL. 080.800.6600 FAX. 02.206.0029 www.nikon-image.co.kr